

태안 기업도시 기공식 축사

여러분 기쁘시지요? 저도 매우 기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곳이 사람 살기 매우 좋은 곳이 된다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단지 태안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와서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와도 경제가 조금 넉넉해지겠지요. 좀더 발전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쉬고, 즐기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면 좀더 넉넉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좀 많아지고 도시 규모도 좀 커지면 도시가 갖추어야 될 교육, 의료, 문화 같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도 확충돼서 아마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이곳, 또 이곳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 그

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 태안군과 충청남도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업도시를 결정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한두 개 기업이 할 수도 있는데 국토의 넓은 면적을 또는 우리 국민들이 다 행정구역을 정해서 살고 있는 동네 하나를 기업이 통제로 와서 개발하고 경영한다는 것이 기업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정부 또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낌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이 여기 와서 돈을 얼마나 벌지 모르지만 그 기업이 안 왔을 때는 이룰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기업이 돈을 다 긁어갈지, 손해를 얼마나 보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기업이 잘돼야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특혜나 유착으로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든지, 정치에 대해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이 더러 있었다고 해서 기업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항상 의심을 품고, 기업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데 인색하다면 언젠가 우리는 다시 가난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업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생각을 바꾸자.'입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데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 도시를 시작할 때 우리가 걱정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화·레저시설이 들어오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시설이 골프장인데, 골프장을 많이 만드는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호의적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골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나 레저 또는 높은 수준의 소비에 대해서도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를 살면서 1980년대에는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그 다음에 소비가 미덕인 사회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앞에 두 가지는 딱 마음에 와서 닿는데 소비가 미덕인 시대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얼른 와 닿지를 았았습니다. 지금도 좀 쓰자 하면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미래를 위해서 덜 쓰면 좋겠지만, 국가 경제를 보면 쓰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경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발전하기는커녕 유지하기도 어려운 경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았던 정보화 시대가 오고 시장의 범위가 전 세계로 넓혀지면서 역대 연봉자 또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받는 연봉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수입이 많은 사람과 월급을 아주 적게 받는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경제가 발전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을 쓸 수 있게 하지 았으면 경제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가 았는 것이지요.

소비가 떨어지면 결국은 경제 전체가 침체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놓은 사람들은 국내에서 쓸 데가 았으면 전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았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고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두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팎에서 또 혹시 먹고 놀고 쓰는 그런 도시, 그것도 혹시 어느 개별기업에게 큰 돈벌이가 될지도 모르는 도시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점을 좀 명료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될 때 저에게 원칙이 있는 사회, 법대로 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겠지만 기업도시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잘라서 이런 아이디어 낸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현대건설 사장의 말씀대로 '놀라운 상상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의 발전에 나란히 발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사고로 우리가 이 사업을 바라보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로 오늘을 다시 한번 축하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연설문에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많이 했는지 잔뜩 적혀 있습니다. 정책을 엄청 바꾸었습니다. 돈의 흐름도 엄청 바꾸었습니다. 적어도 행정이라는 측면, 국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히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균형발전이 갈 길은 멍니다. 시간도 5년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전 국토로 봐서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이 생길 때까지 약 40년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는 쉬워도 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40년 걸렸으니까 분산은 아직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른바 백년대계를 가지고 균형발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 희망은 5년 동안에 멈추게라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지역발전의 지표로써 지역총생산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더 들어왔는가, 나갔는가, 또 외자가 얼마나 유치됐는가를 봅니다. 이렇게 따져 보면 아마 충청남도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것입니다. 인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

남도도 인구가 조금씩 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아직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안에 집중을 멈추게라도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 전체로 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원체 많아서 아직도 인구 증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지방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만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사람의 숫자를 따져 보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정부가 열심히 한 덕분인지 서울이 찰 만큼 차서 그런지 저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약간의 변화가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성과가 나진 않았지만 지방에 축적된 발전역량은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은 빨리 가고 어떤 지역은 늦게 갑니다만 다행히 충청도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를 만나 보니까 고민이 있답니다. 충청남도 전체는 잘 가고 있는데 지역 간 말하자면 군 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해야 하듯이 충청도 안에서도 균형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수도를 내세우고 2003년에 행정수도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헌법소원에 걸렸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만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부처의 일부가 내려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행정수도를 반대하다가 나중에 행정복합특별도시로 일부라도 내려오는 쪽으로 하니까 이전보다 분할이 더 나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거의 5년간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분산이라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을 감수하면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반드시 당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 전체의 미래를 봤을 때 이것이 옳은 투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만들고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지, 당장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말하면 억지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 부처를 일부 남겨 놓고, 일부 옮겨 오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서류보따리 들고 여의도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복합특별시를 만든다면 균형발전의 가치도 훼손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도 훼손하지 않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울 때 서울, 경기지역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 수 났습니다. 물론 예측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공약했습니다. 제 판사로서의 첫 임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1977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은 공약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공약한다면 아무것도 공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로스쿨 정원 문제에 관해서 법조계와 학계가 팽팽하게 다투고 있고,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학교 배정의 문제를 놓고 또 팽팽하게 서로 대립하게 될 텐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 어떤 공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 시기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소신 있는 정치인임을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비켜 가는 것은 소신 있는 후보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명백하게 해 줘야 합니다. 행정도시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하고,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명백하게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이 정책은 별로 관심 없다, 별로 가치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균형발전 제2단계 정책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지방 간, 지역 간에도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어서 민간 기업이 지역으로 가게 하는 정책인데,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어 놓으니까,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라서 불만이고, 3등급은 2등급이 아니라서 불만이고, 4등급은 다 불만입니다. 크게 잘라서 정책에 대한 찬반을 가져가야 결론이 날 텐데, 힘을 모아야 될 지방끼리도 자기 지역의 작은 이해관계만 바라보고 큰 틀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참여정부로서는 많은 전략적 타협안을 가지고 국회와 조금 더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더 밀고 갈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지역대학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고, 대학교가 혁신하고, 기업이 혁신하려고 해도, 좀더 많은 기업이 오지 않고, 그 기업을 따라 좀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대단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전거처럼 너무 더디게 가면 쓰러집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동력을 더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것은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균형발전정책을 좀더 밀고 나가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또 지금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비단 자기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입

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축하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문화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문화의 시대가 올 때 또한 태안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조금 전에 노래하는 학생들, 충청도 학생들입니다. 예쁘지요? 재주가 반짝반짝하고, 밝고 희망찬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 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 읽었던 그 느낌이 충청남도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